Market Index / 13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 2403.15 -0.58	▼ 871.92 -1.58	▼ 39.43 -1.17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1USD	1166.05	1125.95	1EUR	1378.43	1324.65
	100￥	1105.57	1067.55	1CNY	178.74	161.72

제주 외국자본 신규투자 건수 절반 '뚝'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3억5900만달러… 전년 대비 줄어
도착 투자금 6800달러 증가는 기존업체 투자 영향 분석

올해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기준으로는 3억5900만달러, 도착 기준으로는 3억8200만달러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2020년 3분기(누적)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128억9000만달러, 도착기준은 1.4% 증가한 7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3분기 최대실적(52억달러)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신고액 기준으로는 43.6%, 도착액 기준으로는 83.1% 각각 늘어난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 국가 투자가 신고 기준 40억5000만달러, 도착 기준 24억4000만달러로 각각 47.8%, 53.5% 늘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신고액 기준으로 12억5000만달러, 도착액 2억달러로 작년보다 172.5%, 38.5% 각각 급증했다.

이 가운데 3분기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신고기준)은 61건에 3억5900만달러로, 지난해 85건에 4억1700만달러보다 감소했다.

실제 제주에 투자한 도착기준으로는 17건에 3억8200만달러로, 지난해 34건에 3억1400만달러보다 건수로는 17건 감소했으나 투자금액으로는 6800만달러 증가했다.

이처럼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은 신규투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현재 도내에서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특정 외국계 기업이 4~5회에 걸쳐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특정 외국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4~5회에 나눠 자금을 투자했다"며"신규투자 수요 증가로 인해 직접투자 금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신고 기준 누적액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22.4% 감소했으나 3분기 실적에 힘입어 감소 폭이 대폭 줄었고, 도착 기준으로는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K방역이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기존 프로젝트가 점차 현실화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면세점 허용 결정 철회 강력 촉구"

소상공인연합 기재부 비판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은 13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가 직접 나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갑주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10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서울과 제주도에 1개씩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부여했다"며 "코로나 19로 외국인 관광객은 전면 입국 금지돼 전멸했고, 국내 관광객들도 연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제주도 전체가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재부의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온 제주도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국정감사 기간인 현재까지도 기재부는 이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 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산업현장교수 지원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까지 오랜 산업현장의 경험과 숙련기술을 기업과 교육현장에 전수하는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기능장,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이거나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종사자 등으로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http://meister.hrdkore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결과 오는 12월 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현석기자

당근 파종하는 농민 13일 제주시 한경면의 한 밭에서 농민이 태풍피해로 한 달 늦게 당근을 파종해 시험재배를 시도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 서부지역 월동채소 생육 저하 우려

강수량 전년대비 154.2㎜ 적어

최근 가을가뭄으로 제주 서부지역 월동채소 생육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13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주지역 평균 강수량은 0.8㎜로 전년보다 154.2㎜, 평년보다 22.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지감귤은 당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가을가뭄이 지속될 경우 월동채소인 경우 생육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마늘· 쪽파· 양배추·브로콜리·감자 등 대부분 월동채소는 파종 및 정식이 이뤄졌으나 조생양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정식작업에 들어간다.

생육초기 어느 때보다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나 가을가뭄으로 인해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가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양수기까지 동원하고 있으나 양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공급한도의 부족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농협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농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유류비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추석연휴 인구이동량 제주지역만 증가

관광공사 이동량 분석 발표
전국 전년 대비 12.1% 감소
야외 위주 언택트 관광 뚜렷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 추석연휴 인구이동량이 줄어든 가운데, 제주지역 인구이동량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SKT와 통계청의 추석연휴(9월 30일~10월 2일) 이동량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추석연휴 타 시·도와 비교한 '제주지역 추석연휴 인구이동량 분석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관외 인구이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2.1% 감소했다. 그러나 제주지역 추석연휴 일 평균 인구이동량은 50만6819건으로 전년 47만9084건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 인구 이동량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 타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방문해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추석연휴 주요 시·도별 관외 인구이동량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년 대비 15.0%, 부산광역시 17.7%, 광주광역시 23.0%, 전라남도 12.2%, 경상북도 12.2% 등 모두 감소했으며, 관광객이 가장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강원도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인구 이동량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특히 추석연휴 제주 대표 관광지가 포함된 행정구역 일일 평균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비자림 등이 포함된 구좌읍은 전년 동기 대비 42.1%, 절물 자연 휴양림 등이 있는 봉개동은 39.9%, 성산일출봉·섭지코지가 속해 있는 성산읍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린 연휴 3일차(10월 2일)에는 구좌읍은 전년 동기 대비 80.1%, 봉개동은 80.3%, 성산읍은 22.1%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관광공사 고선영 연구조사센터장은 "제주지역만 유일하게 추석연휴 전국 인구이동량이 증가했다"며 "특히 야외 위주의 언택트 관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도개발공사 올해 108명 채용
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신규직원 38명을 채용하는 등 올해에만 108명을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도 개발공사는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총 361명을 채용하는 등 매년 1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취업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며 도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생산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2018년부터는 '비정규직 제로화'까지 달성하며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인재양성에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 리모델링
辛(신)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히트예감 • 윈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히트예감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제라몬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례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예감, 탐나는봉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탱자묘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유라실생 3,4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